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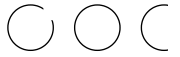
박강수 마포구청장 5일 취임식..."변화·도약으로 주민에 화답"

11분 전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코로나19](#)
[제보](#)
[#중국](#)
[#코스피](#)
[#경찰](#)
[#김승희](#)
[#코로나19](#)
[뉴스홈](#) [최신기사](#)

"인권침해보다 차별이 심각"...빈곤층·장애인이 주 피해 집단

송고시간 2021-12-21 12:00



송은경 기자

[기자 페이지](#)

올해 국가인권실태조사...피해 상황은 검경 수사가 최대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올해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침해보다 차별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침해·차별을 당하는 취약집단은 여전히 경제적 빈곤층과 장애인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개인(1만106가구의 가구원 1만7천593명)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6일~11월 8일 인권의식, 인권침해와 차별경험 등을 조사한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인권위의 국가인권실태조사는 2019년 첫 조사 이후 올해 세 번째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41.8%,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47.4%로 차별의 심각도가 더 높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보다 차별이 심각"...빈곤층·장애인이 주 피해 집단

핫뉴스

야구 선수 서동민·배구 선수
16일 인천서 백년가약

"이탈리아 돌로미티 최고봉
과...등반객 덮쳐 6명 사망"

"래퍼 도끼, 귀금속 미납대금
라"...법원 강제조정

'사치의 여왕' 이멜다, 93세 생
전광판에 축하 메시지

장마 끝나려면 멀었는데...단

우주임무와 맞바꾼 10년치 골

런던 '빅벤' 다시 올린다...5년

가상인간 '루시', 자동차 마케

많이 본 뉴스

[종합](#)[정치](#)

연세대 학생-청소노동
강의계획서에도 반영

땅속에서 벌레 자아면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취약집단(복수응답)으로는 경제적 빈곤층(35.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은 장애인(32.9%), 이주민(22.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7%) 순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군대는 5.4%포인트, 보호시설(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은 7.9%포인트 증가했지만, 직장 생활은 8.2%포인트,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는 6.4%포인트 감소했다.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복수응답)는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 65.2%로 가장 많았고, 가족·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56.7%), 자연·생활환경(29.2%), 가족 또는 친인척(18.9%) 등이 있었다.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가 72.8%로, 대다수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소극적인 대처 이유로는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짐'(33.9%),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21.8%), '어떻게 대응할지 모름'(21.6%) 등이 꼽혔다.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13.1%로 낮게 집계됐으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4.4%로 높게 나타났다.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인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30.9%로 가장 높았으며,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는 혐오·차별 예방(31.2%)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인권위는 올해 국가인권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한국인권학회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포함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축적한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인권통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분석한다.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연도	인권침해		차별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2019년	54.0	46.0	69.1	30.8
2020년	30.4	69.6	33.7	66.3
2021년	41.8	58.2	47.4	52.6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norae@yna.co.kr

관련기사

"경제적 빈곤층·장애인, 인권침해·차별 많이 당해"
국민 69% "한국사회에 차별 심각"...첫 국가인권실태조사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21 12:00 송고

[#인권위](#) [#국가인권실태조사](#)

"인권침해보다 차별이 심각"...빈곤층·장애인이 주 피해 집단

"이탈리아 돌로미티 3
객 덮쳐 6명 사망"(중
"KAIST 교수가 연구실
려"...SNS 게시물

"래퍼 도끼, 귀금속 미
강제조정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영상

[영상] 단 2분만에 엮여까지
량 11대 불탔다

뉴스

尹 "경제 매우 어려워"...
후속조치 지시

尹, 김승희 거취 묻자 "우리는
신속결론"

박지현, 당권 도전 무산...비대
"예외 안돼"

與, 긴급의총서 '野' 의장 선출'
우팅도"

전체 가구의 62% 토지 보유
인은 36%가 보유

댓글 많은 뉴스

연세대 학생-청소
42 파...강의계획서에

"오세훈·한동훈, 여
19 야권 이재명 선두"

'피살 공무원' 특별
15 북 판단 경위 조준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14

"41년 근무한 퇴직. 전력에 포상 탈락"

11

뭐하고 놀까?

현장 영상

디저트야 보석이야? 서울

01:33

[영상] "KAIST 교수가 학생들 뺨 때려...피해 학생 1명 자퇴 예정"

02:57

[영상] 3.2km 상공서 한몸처럼...특전사 여군, 세계군인강화대회 금메달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트와이스,카라의 브사 뺨:샤워 이렇게 찍어봐♥

02:05

러 뺨섬 내주고 오데사에 분풀이?...아파트 등 폭격에 18명 사...

2022-07-01

02:37

"전투경험 일천" 우크라 자원병도 최전방 투입...전사 사례도'

2022-07-03

01:48

[한반도N] 북한도 '손흥민'을 꿈꾼다...대표 축구선수 양성기지는?

2022-07-02

02:32

[영상] '빌딩이 흔들려요'...1천명 종로로 뛰어나온 공포의 4시간

2022-07-01

by

유튜브 채널

뉴스 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콘텐츠

보도

이미지

그림

동영상

인물

회사소개

윤리현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등록일자 1980.12.29

발행일자 1980.12.29

Tel. 02-398-3114

(C) Yonhapnews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